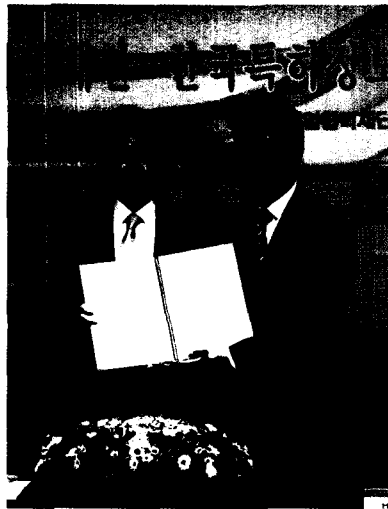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사업에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 한국특허정보원-대·중소기업협력재단 특허정보 보급·활용 MOU 체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사업에 특허정보가 활용되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특허정보원(원장 박재천)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정준양)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특허정보 서비스 활용을 위해 지난 10월 6일 오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국내외 특허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특허청 소속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MOU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정보를 통한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게 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MOU의 주요 협약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특허정보 제공 및 활용, ▲협력사업분야 국·내외 특허정보 활용, ▲국산화 개발업체를 위한 특허서비스 지원, ▲지식재산권 및 특허정보에 대한 보급 및 교육 훈련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특허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보급함으로써 수준 높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수행,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촉진 등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 분야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특허정보원 박재천 원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제특허정보컨퍼런스, “PATINEX 2010” 성료

지난 9월 30일(목)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는 ‘지재권과 혁신’을 슬로건으로 하여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 2010’이 개최됐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방형 기술혁신 ‘표준특허’ 등 국제 지재권 사회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또한, 기업, 연구소 등 기술혁신 주체에 대한 특허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특허정보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장으로써, 위스, 애니파이브, 마크프로, Thomson, LexisNexis 등 국내외 특허정보업체의 IP솔루션이 한자리에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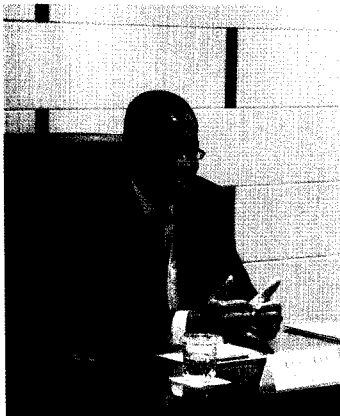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울산대학교 김도연 총장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허경기술표준원장, Alden F. Abbott 미국연방거래위원회 부국장, 유럽특허청 관계자 등

이 분야에 검증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2가지 주제(개방형 기술혁신,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특허정보의 보급 및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한편, 이번 PATINEX 2010은 글로벌 특허유통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방식에서 차별화하였다. 먼저 매년 코엑스에서 이틀간 열리던 행사를 이번에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하루 동안 심도있게 개최하게 되었으며, 컨퍼런스의 구성 또한 정책세미나, 전시회, 워크숍 운영으로 세분화하여 좀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PATINEX 온라인 홈페이지(www.patinex.org)를 다자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산·학·연 특허정보 관계자들이 최근 지재권 동향을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참석자들은 선진 특허정보 및 IP 솔루션을 접할 수 있으므로 특허정보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하고, “특허청은 본 행사를 통해 PATINEX가 국제적 컨퍼런스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이미지를 쇄신하여 국제 특허유통의 허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WIPO 사무차장 일행 방원

WIPO 사무차장 일행이 한국특허정보원에 방문, WIPO와 한국특허정보원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논의했다. 제프리 온예야마 WIPO 개발분야 사무차장과 WIPO 한국신탁기금 컨설턴트 최인선 서기관은 지난 10월 5일 오후 우리 원을 방문하여 우리 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듣고, 특허정보 분야의 적정기술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